

# 한국문화교류 소식

53호 2024년 9월 15일 발행·발행인 위호인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5643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203, 남양빌딩 401호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 생명존중과 윤리의식 (2)\*

### 반려견에 대한 小考



전 영 섭

ICKC 감사, 변호사

#### 1. 반려견 문제

2024년 8월 7일부터 개식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식용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유통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개고기”, “양두구육(羊頭狗肉)”, “니들은 맨날 여의도에서 개짓거리하면서 왜 못 먹게 하느냐, 개만도 못한 놈들이”라는 구호로 개식용금

지법 철회를 시위하기도 한다.

이렇게 개 식용 문제를 두고 시비가 잦지만, 개를 단백질 공급원에서 점차 상생의 반려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는 되돌릴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반려(伴侶)”의 뜻은 “짝이 되다”이니 “개자식”, “개 같은 놈” 같은 하대 말은 삼가고 주인을 위난에서 구해주는, 어린이의 친구이자 경로의 동반 짝으로 바뀌 볼 때가 된 거 같다.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불평등이 없다가 사회를 이루면서 강자와 약자의 경쟁이 생기고, 부자가 빈자를 억압하는 등 인간의 불평등이 발생했다고 논하지만, 태초에 광합성으로 유기체가 생성된 생명의 근원인 세포의 수준에서나 계능 이론에서는 사람이나 개는 생태적인 차이가 없다고 여겨진다.

한편 동물에 얽힌 상식이나 규제에서 동물보호법,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동물원법, 야생생

\* 지난 소식지 52호 권두칼럼 「생명존중과 윤리의식」에 이어 「생명존중과 윤리의식 (2)」를 게재합니다. <한국문화교류소식>의 모든 글은 ICCK 홈페이지(www.ickc-seoul.net)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한 원고를 보내주신 전영섭 변호사님께 지면을 빌려 감사를 표합니다.

물법, 폐기물관리법, 개식용금지법 등 관련 법률은 너무나 많이 우리를 옥죄다. 이상의 내용을 본문에서 좀 더 상세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

① ‘개’는 옛날부터 인간의 먹이감이자, 피를 즐기는 세속화의 희생물로 사냥개가 되기도 했지만 오늘날도 우리 곁에서 살고 있다. 토사구팽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옛날 개장수들이 “개 사려~”하고 청승스럽게 외치는 소리나 독을 숨긴 먹이로 맹견을 훔쳐 도살장에 팔면서 똥개는 보신에 으뜸이라며 잡아먹는 그릇된 풍습은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식용을 목적으로 비위생적 개농장이 번성하였고 좁은 쇠창살 속에 갇힌 어미개와 새끼들이 죽을 차례를 기다리는 악습이 여전하다. 농장이나 도살장에서 개들은 큰 고통을 받으며 태어나고 죽어간다. 마취도 하지 않은 채 다른 개들 앞에서 쇠꼬챙이 등으로 극도의 공포 속에서 생명이 끊어지고 만다.

② 인본사상과 경제 발전으로, 생명 과학과 생명 보호운동이 글로벌화하면서 동식물의 생존권이 도덕적·윤리적 문제로 회자되는 세상이다. 특히 개는 인간이 의존하는 반려 대상으로 되어간다. 인간과 장기적인 공존을 배려하여 ‘의인화(擬人化)’까지 논의되기도 한다.

2021년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제하의 민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안이 제출



▲ © Mykyta Kravchenko, Unsplash

하였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반면 오스트리아 민법 285조a는 1988년 전 세계 최초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고 제정했고 독일(1990년 민법 90조a), 스위스(2002년 민법 641조a)도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를 가족으로 여기며 소, 돼지, 닭들과 달리 식재료에서 제외하는 인지의 변화와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일례로 박주연 변호사는 저서 『물건이 아니다』(2003)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만이라도 공장식 축산 환경이 아닌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자’는 타협안을 제기했고 이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필자도 동의하는 바이다.

이런 추세에서 대법원도 ‘특정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은 해당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체 및 그 방법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준다’(대법원 2019.09.18. 선고. 2017도 16732호 판결)고 했고, 동물보호법도 대폭으로 개정되었으며 올 초에는 개식용금지법이 제정되는 데까지 이르렀다(2024.01.09.).

## 3. 유기견 문제

① 2022년 기준 반려동물 등록 현황은 278만 마리지만 등록하지 않은 수를 포함하면 800만 마리가 넘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이중 버려지거나 분실되는 개는 해마다 11~13만 마리로 추산된다. 유기견은 무게 10kg 이상의 중형견이 많으며 이사 혹은 휴가지에서 많이 생기고 수용 또는 포획의 경우 일단 동물보호소에서 새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유치하나 탈출하는 경우도 많다. 부근 산이나 마을을 배회하고 때로는 본래 습성으로 떼를 지어 가축이나 등산객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유기된 경우 자연사(질병)나 안락사로 종결하는데 동물 보호단체의 항의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②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보호소는 지자체가 운영(위탁 포함)하는 ‘동물보호센터’와 민간에서 운영

하는 '동물보호시설(시설동물보호소)'로 대별하는데, 대개 자율적 운영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며 시설이나 관리상태가 열악하고 운영자의 무성의와 10일간의 보호기간 내에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안락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유기견에 대한 '새 가족 찾기 운동'이 시민운동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 4. 판례의 변화

① 공동생활에서 이웃집 개 짖는 소리에 시비가 벌어지거나 개물림 사고를 견주와 피해자 사이에 소송 등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에는 소유주의 확인, 유기견의 책임 소재, 반려동물 등록제, 인식칩 삽입 등 세부적인 행위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원의 판례도 동물권 관련 위법 행위자에 대해 종전에는 반성하지 않거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이후 흐름을 보면 박애사상으로 도덕적 윤리적 배려와 자연주의에로의 회귀 등 '동물권'을 인정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인간 중심으로 동물을 보던 관점에서 동물의 생존권을 중시하려는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는 선진국에 걸맞은 긍정적 변화라고 하겠다.

② 동물 자체에 대한 권리 능력, 당사자 능력은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권이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04.25. 선고, 2012다 118594판결). 이는 외국에서도 같다. 천성산 내원사 사찰의 지을스님이 제기한 '천성산 도롱뇽 소송'에서, 터널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사건에 있어 도롱뇽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대표적이다.

③ 동물보호법 정비 후,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

명체로서 인류와 동등하거나 자연 그대로 태어나 살아갈 권리를 인정하려는 경향이 보편화되고 있다. 의인화로 법적 평등개념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에 부여된 천부적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 판례들이 이런 변화된 인식을 보여준다.

(a) 정의선 숲길에서 다른 사람이 기르는 고양이를 바닥에 내려치고 머리를 밟는 등 잔인하게 살해한 예 - 징역 6개월 실형(서울서부지법 2020.02.13. 선고, 2019노 1696호 판결)


(b) 자신을 보고 짖는다는 이유로 개머리를 심히 훼손하고 살해한 예 - 징역 8개월 실형(서울서부지법 2020.04.20. 선고, 2020노 158호 판결)

(c) 초등학교 인근에서 길고양이 10마리 살해하고 전시한 예 - 징역 2년 6개월(대구지법 2022.11.25. 선고, 2022노 3628호 항소심 판결)

(d)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강아지를 마당에 던져 죽인 예 - 벌금 100만 원(서울남부지법 2022.07.20. 선고, 2022고정 363호 판결)

(e) 세입자가 다가구 주택에 입주계약하면서 반려견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집주인과의 임대차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 5. 끝내기

이상으로 2회에 걸쳐 생명존중과 윤리의식 문제를 실제 사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동물권을 연구하고 옹호하는 각종 단체를 비롯해, 우리 ICKC(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가 전개하는 생명존중운동에도 많은 관심과 지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과 동식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 되기를 또한 희망합니다. 

####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단체(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10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에 의해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 전액 손비 인정됩니다.

##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30주년, 세계 태권도인 파리에 모여 축하



강석재

ICKC 이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세계태권도연맹(WT)은 지난 8월 6일(현지시간) 오후 파리의 세계올림픽연합회(OLY) 하우스에서 태

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지 30주년을 기념하는 연회를 개최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대신해 세르미앙 응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각국 태권도협회 주요 인사들뿐 아니라 IOC 위원인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과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등 인사들도 현장을 찾았다.

응 부위원장은 “IOC 총회가 태권도를 정식 종목으로 포함한 지 30년이 됐고, 태권도는 올림픽에서 핵심적인 스포츠로 받돋움했다. WT에 축하를 전한다”면서 “1994년에 140개 국가가 태권도를 했지만 이제는 213개국까지 그 수가 늘었고 난민팀까지 있다. 태권도는 작은 나라들도 올림픽에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길을 태권도가 제공했다”고 평했다.



▲ 8월 4일 오후(현지시간) 파리시청 올림픽 응원 팬 존에서 시범을 펼치고 있는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 (출처: 연합뉴스)

이어 조정원 WT 총재가 발언대에 올라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지 30년이 된 태권도가 최근 난민을 돕는 등 인도적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총재는 태권도박애재단(THF)과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이 요르단의 아즈락 난민 캠프에서 스포츠 축제를 공동 개최했다며 내년에 유도, 레슬링, 탁구, 핸드볼도 함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난민 캠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운동을 가르친다며 태권도의 사회적 힘을 끌어내는 게 ‘올림픽 스포츠’로서 나아갈 방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정원 총재와 뜻을 모아 태권도 겨루기에 전자호구 도입을 추진했던 이반 디보스 전 IOC 위원도 이날 연회에 참석했다. 1939년 생으로 고령인 디보스 전 위원은 휠체어를 타고 현장을 찾아 큰 박수를 받았다.

조 총재는 이날 행사에 참여한 디보스 전 위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전자호구시스템’(PSS, Protector Scoring System) 도입 당시를 회상했다. 조 총재는 전자호구시스템을 PSS라고 부르기 전에는 그냥 전자보호대 정도로 칭했다며, 어느 날 디보스 위원이 자

신을 찾더니 “보호대가 아닙니다. PSS입니다”라고 했고, 그의 조언을 받아들였다고 언급했다.

이후 세계태권도연맹은 디보스 전 위원을 위원장으로 2008년 전자호구특별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으로 종목 혁신에 나섰다. 2012년 런던 올림픽부터 도입된 PSS 덕분에 태권도는 판정 시비 문제를 대폭 줄이는 데 성공했고, 이를 통해 종목 퇴출 가능성도 줄어들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처음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래, 2024년 파리 올림픽까지 올림픽 스포츠로서 태권도는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스포츠로서 인도적 책무를 다 하기 위해 부단히 혁신하고 발전 중이다.

한편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박태준 선수가 남자 58kg급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종주국 명예를 회복하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아울러 총 32개의 메달이 걸린 태권도 종목에서 23개국이나 하나 이상 메달을 획득하면서, 올림픽 정신에 가장 잘 맞는 스포츠라는 찬사도 잇따르고 있다. 🏆🏆🏆🏆🏆



▲ 태권도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3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는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출처: 연합뉴스)

## 알프스 자락에 내린 뿌리깊은 나무



박민주

클럽슐레(Klubschule) 어학/창조문화 소속 강사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에서 거주하며 한국어 수업과 한식 쿠킹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 박민주라고 합니다. 2009년 베른한글학교에서 아동, 성인 대상 한국어 교사로 시작해, 스위스 교육기관인 클럽슐레(Klubschule)에서 현지인들에게 한국어를 매개로 한국과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돕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현재 대학원에서 한국학 석사학위 과정을 병행 중입니다.

1948년에 설립된 클럽슐레(Klubschule Migros)는 스위스 최대 성인 교육 기관으로 IT와 미디어, 경영 및 경제, 예술과 문화, 언어, 건강, 기업 및 전문 자격 등과 관련한 다양한 강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공식 인증 및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 전역에 약 50개의 캠퍼스를 보유하고

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맞춰 온라인 수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1년 스위스로 이주한 당시 스위스 전역의 어학기관에는 중국어, 태국어, 일본어 수업 등 아시아계 어학코스가 있었지만, 한국어 수업은 다루지 않았고 한국에 대한 인식조차 낮아서 속상하고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제가 스위스에서 이렇게 직접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기쁜 일이며 그 의미가 크고 깊습니다. 또한 학습자들의 구성과 배경, 학습 이유와 목적이 다채로워졌고 연령대 역시 노년층으로까지 확장될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느린 이곳 스위스에서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인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딸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인 동시에 엄마선생님의 입장이었던 베른한글학교는 1996년에 개교해 올해로 28주년을 맞이하는 전통 있는 학교로 성장하였습니다. 베른한글학교에서 지향하는 한국어 교육은 한글 습득을 넘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유하며,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고 이방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회복탄력성을 길러주는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풍이나 발표회 등의 연례행사로 한국적 정서와 연대감을 키우고, 정규 수업 외 사물놀이, 한지공예, 태권도 시범과 같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글학교 성인반이나 클럽슐레에서는 대부분 취

미 목적 한국어가 주를 이룹니다. 언어를 배우겠다는 것은 곧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에 관심이 있고 열린 마음이라는 것을 수업에 임하는 성실한 태도와 꾸준함, 눈빛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여, 그에 부응하기 위해 수업은 문화적 요소를 활용해 지루해지지 않게끔 재미를 곁들여 준비하고, 문화 체험 활동을 매개로 현지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2년 전 전주시가 주최한 재외동포 한국전통문화 집중 연수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이를 통해 더 효과적이고 깊이 있는 문화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외에 사는 관계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접할 기회가 빈약했던 제게 유용한 경험이었으며, 양질의 강의와 풍성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교육과 접목시킬 노하우를 배우고 다채로운 수업을 기획할 수 있었습니다. 연수 이후 저는 제가 배운 사물놀이, 민요, 매듭, 춤사위 등 우리 전통 문화 요소를 한국어 수업에 최대한 활용하고, 한국 여행과도 연계해 전주시에 대한 홍보 역시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물놀이 연수는 제 개인 취미로도 이어져 수업에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직접 사물놀이패를

조직해 규칙적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부족한 실력이지만, 스위스 글랑(Gland)에서 열린 K-페스티벌 행사에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K-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으로 유명해진 이셀트왈드(Iseltwald)의 정기 야외행사에도 초대되어 공연한 바 있습니다. 배운 것을 다시 나누고 전달하는 기쁨과 보람을 느낀 좋은 경험이었고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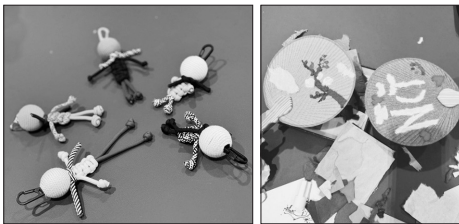
끝으로 때마침 한글날이 다가오기에 떠오른, 베른한글학교 20주년을 맞아 작성했던 글의 일부를 되새기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은 세종대왕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려 제정되었다.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이시자 이제는 한글을 배우는 모든 지구인들의 스승이신 세종대왕님. 한글창제의 목적은 간단명료하다. ‘누구나 쉽게 익히고 쓸 수 있게 만든 문자!’ 그 클한 의도에 맞게 한국어 교실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이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한국어 교사의 역할이자 세종대왕, 스승님의 큰 뜻을 이어가며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고맙습니다.



▲ 한지공예/매듭공예 특별수업



▲ 2024 스위스 K-페스티벌 사물놀이 초청공연



## 올해 우즈베키스탄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생 4만5천명 달해

재외교육 기관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이 8월 21일 현지 공교육 분야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국민교육 발전 유공' 훈장을 받았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공교육 분야 훈장을 준 외국 기관은 주우즈베크 프랑스대사관과 유네스코(UNESCO) 우즈베키스탄 사무소뿐이다.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은 한국어 보급·확산을 위해 공인 한국어 경시대회를 개최하고 한국어와 수학, 과학, 정보기술(IT) 등 한국의 다양한 교과 교원을 현지 학교에 파견하는 한편, 한국 학교와 현지 학교간 자매결연을 확대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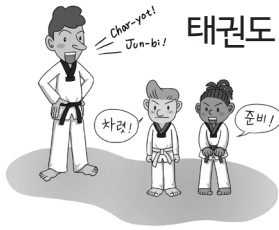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를 채택한 정규학교 수는 2022년 56개교에서 올해 136개교로 늘었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생은 2022년 1만2천123명에서 지난해 2만2천89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4만5천명이 시험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우마로바 힐로라 우즈베키스탄 유아일반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교육원이 양국 간의 활발한 교육·문화 교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고, 팽주만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장은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현지에 전파함으로써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향후 양국의 가교역할을 할 인재로 성장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화답했다.

[기사 출처](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2024/08/21



▲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의 팽주만 원장(左)과 우마로바 힐로라 우즈베키스탄 유아일반교육부 장관



## ‘아프간 탈출’ 쿠다다디, 난민 최초 메달 “태권도가 날 구해줘”

전 세계 난민과 장애인에게 희망을 안겨준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태권도 선수 자키아 쿠다다디(25)가 자신의 두 번째 패럴림픽 무대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난민 선수단 최초의 패럴림픽 메달이다.

쿠다다디는 지난 8월 30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태권도 K44 여자 47kg급 패자부활전에서 에킨시 누르지한(튀르키예)을 9-1로 꺾었다. 메달을 목에 걸게 된 쿠다다디는 관중석의 가족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미소 지은 뒤 “어머니와 아버지가 파리에 왔다. 그리고 많은 아프가니스탄인이 응원해줬다. 그 힘으로 메달을 딴 것 같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쿠다다디는 왼쪽 팔꿈치 아래가 없는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로홀라 니크파이(2008 베이징·2012 런던 태권도 남자 동메달)를 보고 9세 때 태권도를 시작했다. .

쿠다다디는 “태권도는 내 삶에 있어서 마술과도 같다. 나를 구해줬고, 태권도를 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나를 몰랐을 거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태권도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다.

[기사 출처](파리=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2024/08/30



▲ 2024 파리 패럴림픽 태권도 동메달을 차지한 뒤 인터뷰하는 자키아 쿠다다디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 ■ ICKC,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에 '태권도발전기금' 1천만 원 후원

지난 7월 1일(월), ICKC는 태권도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30주년을 기념하고 태권도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자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GCS International)에 태권도발전기금 1천만 원을 후원했다.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는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의 선친인故 조영식 박사(경희학원 설립자)께서 1979년 설립된 단체로 1981년 UN “세계 평화의 날”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1997년에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 지위를 획득해 국제 NGO로서의 위상을 인정받고 있는 세계적 단체이다. 이번 태권도발전기금은 추후 네팔 태권도협회에 전달되어 소외계층 태권도 교육 사업에 운용될 예정이다. ICKC는 세계태권도연맹,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를 통해 우즈베키스탄(2017년), 캄보디아(2018년), 네팔(2019년), 스리랑카(2020, 2022년), 폴란드(2023년) 등 세계 각국에 태권도 문화 진흥 및 교육을 위한 태권도발전기금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 '마리소리골악기박물관 힐링음악회' 후원 및 참석

지난 8월 30일(목), ICKC 임원과 회원분들이 홍천군이 주최하고 (사)마리소리음악연구회가 주관한 '마리소리골악기박물관 힐링음악회'에 참석했다. 홍천군 서석면에서 개최된 이번 음악회는 기존의 '홍천 마리소리 여름축전'을 이어 받아 규모를 더 확대해 지역민을 위한 본격적인 문화행사로 개최된 행사로,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수많은 지역민과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음악회는 김보연, 고금성의 국악, 타악기 그룹 진명의 퓨전국악, 이성준, 김승진, 최준우의 대금과 피아노, 기타가 어우러진 크로스오버 공연뿐만 아니라 신승태, 홍지나의 트로트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들로 진행됐다. 참석한 ICKC 회원분들도 수준높은 공연을 즐겁게 관람했고, 수려한 산세와 맑은 공기가 어우러진 홍천 마리소리골의 아름다운 자연도 만끽했다. ICKC는 예년과 동일하게 이번 행사에도 소정의 금액을 후원해 음악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는 데 일조했다. 참석한 회원 여러분 및 멋진 음악회를 개최한 주최 측에 지면을 빌려 감사의 뜻을 표한다.



### 2024년 후원하여 주신 분

2024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이 헛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영실, 강재근, 고용규, 구병진, 김건길, 김성열, 김소진, 김승한, 김시범, 김용구, 김용준, 김은자, 김정수, 김정일, 김정택, 김진원, 김창옥, 김호일, 김홍석, 도재영, 박경명, 박기연, 박미나, 박미화, 박원출, 박익근, 박인숙, 박청수, 배대환, 송대성, 심의표, 양수영, 오일호, 유영찬, 유자효, 이명우, 이병욱, 이상철, 이석복, 이석종, 이성호, 이인재, 이항구, 이현목, 이효정, 이호진, 장정용, 전영섭, 전찬수, 정경수, 정상설, 정현관, 조남철, 조성직, 조춘연, 추호석, 표재순, 허원준, 홍경자, 홍계화, 황경애, (주)동우들, (주)이제, (주)세협엔터프라이즈, 수풍산업(주), (주)신동, (주)포스코DX, (주)P&H

가나다순, 2024년 1월 1일 ~ 2024년 9월 15일까지

총액 : 38,742,750원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2011.08.16. 사단법인 인가 (문화체육관광부 제2011-29호)  
2012.10.02.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166호)  
2018.06.29.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2024.03.29.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10호)

조직 구성	고 문 강성구 前 MBC 사장 박관용 前 국회의장 최불암 예술인	김용구 (주)신동 회장 조남철 前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표재순 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총 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사장	위호인 (주)뉴플러스컴 회장	
이 사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회 총재 조춘연 정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박의근 재정위원장, (주)P&H 회장 장정용 (사)한국이집트발전협회 수석부회장
운영위원	고용규 (주)동우들 대표이사 이효진 前주한호주대사관 호한재단 사무처장	심의표 前 KBS 부산총국장 정순영 前 국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감 사	전영섭 변호사	박원출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

## 주요 활동 내역

2012년 조선족 자치주 설립 60주년 행사 연길 방문  
2013년 서독 광부 파견 50주년 행사 개최  
2014년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 연해주 방문  
2015년 파독(派獨) 광부와 간호사들의 땀과 눈물을 기리고 한·독 교류를 증진하고자 독일 뉘스라켄에서 한국음악회 공연  
2017년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우즈베키스탄 방문 및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께 태권도 명예 9단증 수여 · 타슈켄트 대학 태권도학과 신설 약속  
2018년 저개발 국가의 태권도 · 한국어 교육을 위해 세계태권도연맹 등과 업무협약 체결 및 캄보디아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타이페이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참관  
2019년 네팔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면암 최익현 선생 묘소 참배  
2020년 스리랑카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2021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태권도장 등록 원비 지원 사업  
2022년 반려동물사랑 영상 공모전 및 '동물사랑 · 생명존중 시나리오 공모전' 개최, 재능교육, 대한태권도협회, 서울시수의사회와 함께 국내 태권도장 수련생 대상 '생명존중 캠페인' 전개, 스리랑카 태권도발전기금 전달  
2023년 세계태권도연맹 창설 50주년 기념식 참석 및 폴란드 태권도발전기금 전달, 스리랑카 GCS 국제대회 및 GCS & THF Asia 태권도 대회 참석

이외 재외동포유학생 장학금 수여, 정기적인 소식지 발간(분기별) 및 국내 · 외 문화탐방,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사랑·생명존중

JETI 재능교육

지켜주자, 우리 스스로!



**동물을 사랑하면  
우리모두 행복해요!**

 Taekwondo Animal (태권도 애니멀 TV)